영광의 시간: 심자가의 부활

4 신24:1-4/ 시 121:1-8/ 고전 15:1-11, 20(부)/ 12:9 (주 과)

주일 주 지 나 보 내 기

기도 여드레

"그러므로 일어나 기도하라 혹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깨어 있으라 (눅22:46) 그 때를 알아 자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 좋도다 (롬13:11)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장부답고 강하라 (고전16:13)

"Pray therefore said unto him, Art thou a king then? Jesus answered, Thou sayest that I am a king.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came I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unto the truth. Every one that is of the truth heareth my voice." (Jn.18:37)

"하 나 님이 그 아 들 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요3:17)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기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다 함이니라 (요16:33)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때가 왔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요17:1) 아버지 내가 원하기는 아들 내게 주신 자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17:24) 보혜 주 성령 (요14:26) 요15:26)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So when this corruptible shall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shall put on immortality,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O death, where is thy sting? O grave, where is thy victory?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ich giveth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고전15:51-57)

"Be not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he that liveth, and was dead; behold, I am alive for evermore, Amen; and have the keys of hell and of death. Write the things which thou hast seen, and the things which are, and the things which shall be hereafter;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which thou sawest in my right hand, and the seven golden candlestick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candlesticks which thou sawest are the seven churches. (계1:17-20)

"Behold, I sho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So when this corruptible shall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shall put on immortality,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O death, where is thy sting? O grave, where is thy victory?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ich giveth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고전15:51-57)

"Behold, I tell

빈 무덤

요한복음 20:1-7을 읽으세요. 이 구절에 묘사된 내용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Read John 20:1–7. What is the importance to us about what is depicted in these verses?

"여자들이 두려 갑은 방향에서 무덤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했고, 들이 치워진 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여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덤 주위에 떨어 비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 주변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을 굴린 천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이 하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있었고, 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천사의 말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음이라. 와서 주님이 누워 계신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제자들은 다시 무덤을 돌아다보고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도대 천사가 그곳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어나야 하는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 Ad 788.3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이제 기름부음 향료는 필요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그분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알려나 기쁜 날입니까!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재빨리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Ad 789.1

"The women had not all come to the tomb from the same direction. Mary Magdalene was the first to reach the place; and upon seeing that the stone was removed, she hurried away to tell the disciples. Meanwhile the other women came up. A light was shining above the tomb, but the body of Jesus was not there. As they lingered about the place, suddenly they saw that they were not alone. A young man clothed in shining garments was sitting by the tomb. It was the angel who had rolled away the stone. He had taken the guise of humanity that he might not alarm these friends of Jesus. Yet about him the light of the heavenly glory was still shining, and the women were afraid. They turned to flee, but the angel's words stayed their steps. "Fear not ye," he said; "for I know that ye seek Jesus, which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And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is risen from the dead." Again they look into the tomb, and again they hear the wonderful news. Another angel in human form is there, and he says, "Why seek ye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is risen: remember how He spake unto you when He was yet in Galilee, saying,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 Ad 788.3

"He is risen, He is risen! The women repeat the words again and again. No need now for the anointing spices. The Saviour is living, and not dead. They remember now that when speaking of His death He said that He would rise again. What a day is this to the world! Quickly the women departed from the sepulcher 'with fear and great joy; and did run to bring His disciples word." Ad 789.1

요한복음 20:8-10을 읽어 보아. 알파벳을 알았던 한이 개혁자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Read John 20:8–10. What was the meaning of the folded face cloth?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갔고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수의와 냅킨을 보았지만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님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셔 무덤을 떠났습니다. 수의는 부활과 영원 바라보고 있어 이 나라 조심스럽게 접혀서 각각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성구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Ad 789.2

"그토록 정성스럽게 수의를 접히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무덤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일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다른 천사와 함류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돌을 굴리자 다른 천사는 무덤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서 포장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을 접어서 제자리에 놓으신 것은 구세주의 손이었습니다. 별과 반지를 모두 만드셔서는 그분의 능예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일에는 질서와 완전함이 보입니다." Ad 789.3

"Mary had not heard the good news. She went to Peter and John with the sorrowful message, "They have taken away the Lord out of the sepulcher, and we know not where they have laid Him." The disciples hurried to the tomb, and found it as Mary had said. They saw the shroud and the napkin, but they did not find their Lord. Yet even here was testimony that He had risen. The graveclothes were not thrown heedlessly aside, but carefully folded, each in a place by itself. John "saw, and believed." He did not yet understand the scripture that Christ must rise from the dead; but he now remembered the Saviour's words foretelling His resurrection. Ad 789.2

"It was Christ Himself who had placed those graveclothes with such care. When the mighty angel came down to the tomb, he was joined by another, who with his company had been keeping guard over the Lord's body. As the angel from heaven rolled away the stone, the other entered the tomb, and unbound the wrappings from the body of Jesus. But it was the Saviour's hand that folded each, and laid it in its place. In His sight who guides alike the star and the atom, there is nothing unimportant. Order and perfection are seen in all His work." Ad 789.3

12월 19일 목요일

예수와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1-13절을 읽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히 빈 무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다가 예루살렘로 돌아왔을 때 혼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의 머리와 발치에 앉는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부짖느냐?'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 주님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Ad 789.4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배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천사들로부터도 돌아섰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는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한 사람의 형체를 보았고, 정원사라고 생각하여 '선생님, 주님을 어떻게 낮은성으로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습니다.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묻기에는 너무 영예로운 장소라고 생각하였.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바뀌진 무덤, 나사로가 누워 있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짓을 위한 무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소중한 시신을 돌보는 것이 슬픔에 빠진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d 790.1

"Mary had followed John and Peter to the tomb; when they returned to Jerusalem, she remained. As she looked into the empty tomb, grief filled her heart. Looking in, she saw the two angels,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oot where Jesus had lain. "Woman, why weepest thou?" they asked her. "Because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she answered, "and I know not where they have laid Him." Ad 789.4

"Then she turned away, even from the angels, thinking that she must find someone who could tell her what had been done with the body of Jesus. Another voice addressed her, "Woman, why weepest thou? whom seekest thou?" Through her tear-dimmed eyes, Mary saw the form of a man, and thinking that it was the gardener, she said, "Sir, if thou have borne Him hence, tell me where thou hast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If this rich man's tomb was thought too honorable a burial place for Jesus, she herself would provide a place for Him. There was a grave that Christ's own voice had made vacant, the grave where Lazarus had lain. Might she not there find a burial place for her Lord? She felt that to care for His precious crucified body would be a great consolation to her in her grief." Ad 790.1

요한복음 20장 14-18절을 읽어 보세요.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Read John 20:14–18. What changed everything for Mary?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친숙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낯선 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돌아보니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는 그분의 발을 붙안으려는 듯 그분을 향해 뛰어가면서 '랍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 이르시되, '나를 붙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를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셨다.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가니라." Ad 790.2

"But now in His own familiar voice Jesus said to her, "Mary." Now she knew that it was not a stranger who was addressing her, and turning she saw before her the living Christ. In her joy she forgot that He had been crucified. Springing toward Him, as if to embrace His feet, she said, "Rabboni." But Christ raised His hand, saying, Detain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say unto them, I ascend unto My Father, and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And Mary went her way to the disciples with the joyful message." Ad 790.2

12월 2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While the Saviour was in God's presence, receiving gifts for His church, the disciples thought upon His empty tomb, and mourned and wept. The day that was a day of rejoicing to all heaven was to the disciples a day of uncertainty, confusion, and perplexity. Their unbelief in the testimony of the women gives evidence of how low their faith had sunk. The news of Christ's resurrection was so different from what they had anticipated that they could not believe it. It was too good to be true, they thought. They had heard so much of the doctrines and the so-called scientific theories of the Sadducees that the impression made on their minds in regard to the resurrection was vague. They scarcely knew what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could mean. They were unable to take in the great subject. Ad 790.4

"Go your way," the angels had said to the women,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He goeth before you into Galilee: there shall ye see Him, as He said unto you." These angels had been with Christ as guardian angels throughout His life on earth. They had witnessed His trial and crucifixion. They had heard His words to His disciples. This was shown by their message to the disciples, and should have convinced them of its truth. Such words could have come only from the messengers of their risen Lord. Ad 793.1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e angels said. Since the death of Christ, Peter had been bowed down with remorse. His shameful denial of the Lord, and the Saviour's look of love and anguish, were ever before him. Of all the disciples he had suffered most bitterly. To him the assurance is given that his repentance is accepted and his sin forgiven. He is mentioned by name. Ad 793.2

"Tell His disciples and Peter that He goeth before you into Galilee; there shall ye see Him." All the disciples had forsaken Jesus, and the call is to them, as it was when they were all. He has not cast them off. When Mary Magdalene told them she had seen the Lord, she repeated the call to the meeting in Galilee. And a third time the message was sent to them. After He had ascended to the Father, Jesus appeared to the other women, saying, "All hail. And they came and held Him by the feet, and worshiped Him. Then said Jesus unto them, Be not afraid: go tell My brethren that they go into Galilee, and there shall they see Me." Da 793.3

"Christ's first work on earth after His resurrection was to convince His disciples of His undiminished love and tender regard for them. To give them proof that He was their living Saviour, that He had broken the fetters of the tomb, and could no longer be held by the enemy death; to reveal that He had the same heart of love as when He was with them as their beloved Teacher, He appeared to them again and again. He would draw the bonds of love still closer around them. Go tell My brethren, He said, that they meet Me in Galilee. Da 793.4

"As they heard this appointment, so definitely given, the disciples began to think of Christ's words to them foretelling His resurrection. But even now they did not rejoice. They could not cast off their doubt and perplexity. Even when the women declared that they had seen the Lord, the disciples would not believe. They thought them under an illusion." Da 794.1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